

고전문학 교육 텍스트의 전문적 특성과 교양적 성격

- 대학의 전공 교육으로서의 위상에 주목하여*

한창훈**

<차례>

1. 서론
2. 고전문학 텍스트의 성격과 교육 방법론
3. 고전문학 연구의 전문적 특성과 교육 텍스트
4. 문학의 교양적 성격과 교육 텍스트 다루기
5. 결론

<국문초록>

전통적으로 대학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전문화된 연구에 몰두하고, 여기서 정립된 교육 내용이 중등교육을 통해 확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왔다. 그런데 국어교육 자체가 학문 중심적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의사소통 중심의 기능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고전문학 교육도 기존의 문학이론과 문학사 중심의 교육 내용에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속성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의 점진적 변화가 있었다.

고전문학은 두 가지의 교육적 속성을 갖는다. 하나는 오랜 시간을 걸쳐 전승해 오는 동안 끊임없이 향유되고 재해석되어 현재에도 일정한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 속성이다. 이를 교양적 성격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당대의 삶의 모습을 담지하는 자료로서 문화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전 텍스트에 대한 문해력의 획득이라는 학문적 위상을 갖게 하였다. 이는 전문적 특성이라는 말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모든 고전문학 텍스트는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텍스트가 가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교육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 이 논문은 202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교양’은 일정한 문화 이상을 체득하여 이를 통해 체화된 창조적인 이해력이나 지식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시대나 민족의 문화 이념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다. 고전문학의 교육철학으로 ‘문화’는 역사와 철학을 포괄한 의미를 가졌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문화에 잘 대응하는 개념을 교양이라고 본다.

이때 한국의 경우, 교육과정 구성에 ‘문화’라는 개념어가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 구성에 ‘교양’이라는 개념어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여기서는 이런 양국 간의 차이에 대한 가치론적 평가는 하지 않기로 한다. 양국의 인식 차이는 다 각자 나름의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한국의 대학 교육과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학의 학부 전공 수업에서도 교육 방법을 새롭게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전문적 특성에서 교양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주제어 교육 텍스트, 전문적 특성, 교양적 성격, 문화의 원형, 문해력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고전문학 교육 텍스트를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의 연구 및 교육이 가지는 전문적 특성과 교양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교육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논의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층위를 미리 상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의 학부 전공 교육 즉 문과대학 혹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부생들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대학 학부 이상은 대학원을 포함하여 고급적 원전 텍스트를, 중등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가공 텍스트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학의 전공 교육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를 어떻게 볼 것 인가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예전과는 달라진 현 시대 대학교육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원래 필자는 고전문학 교육을 연구하면서 주로 중등학교 학습자 특히 고등학교 및 대학 교양과정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중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을 비교 검토하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한국고전문학회 제121차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진지한 논의를 따라가다 보니¹⁾,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전공 교육에 해당되는 부문에 대해 필자의 논의를 추가로 제출하여, 학계의 논의를 좀 더 끌어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도 우리가 더 나아간 논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같이 검토해보기로 했다.

전통적으로 대학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전문화된 연구에 몰두하고, 여기서 정립된 교육 내용이 중등교육을 통해 확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의 5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교육 자체가 학문 중심적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의사소통 중심의 기능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국어교육에 속해 있는 문학교육도 기존의 문학이론과 문학사 중심의 교육 내용에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속성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의 점진적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경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는 대학의 교육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학의 학부 전공 수업에서도 교육 방법을 새롭게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앞선 학술대회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알고 보면 사실 이는 이웃 나라 일본의 변화 과정과도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국어 교육의 호칭을 국어교육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두 나라인 양국은, 근대 교육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시행되는 시기에는 식민지 피식민지의 관계를,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일본에서는 패

1)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에 <대학의 전공 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의 새로운 길찾기>라는 주제하에, 조용호(목포대), 홍나래(성공회대), 김서운(경상대), 서철원(서울대), 송호빈(고려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전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상호간에 큰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실정이다.²⁾

형태상으로 보면 양국 간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대단히 흡사하다. 그러나 고전문학 특히 원전을 중요시하고 이를 교육 텍스트로 삼아 작품 해석에 주력하는 전문적 특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일본이 강한 편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배우도록 되어 있는 한국의 ‘국어’와 일본의 ‘國語總合’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고문 및 현대문 작품을 싣고 있으며, 한자와 한문 영역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심화 선택 과목은 한국의 경우,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문학·고전이며, 일본의 경우, 國語表現·現代文·古典이다.³⁾

그런데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 고전문학 자체의 교육, 즉 전문적 특성보다는 고전문학을 하나의 자료로 보는 교양적 성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양국의 교육과정 변천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경우, 시대의 교육관, 과학 기술, 경제 발전, 정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로는, 양국의 고전문학 교육과정의 현황은 그 초점이 과거에의 향수나 지식 교양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학생들에게 독해력을 기르고 자신의 관점이나 감수성, 사고력을 배양해 인생을 윤택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자국의 고문만이 아니라 한문, 한시까지도 고전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문을 독립시켜 제2외국어처럼 다루고, 한자 교육도 국어과에서 거의 소외된 한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⁴⁾

2) 관계자에 따르면 ‘2차와 3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당시 일본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4차부터는 자체 연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창원 외, 『문학교육개론』 I, 역락, 2014. 186쪽에서 재인용.

3) 한창훈, 「한국과 일본의 중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관점의 대비적 고찰」, 『어문연구』 106, 어문연구학회, 2020, 305~328쪽.

이러한 중등교육의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필연적으로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존의 전문적 특성에서 교양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된 국문학 연구 체제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내려와,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은 연구와 동일시되었으며, 이의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형태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1980년대 4차 교육과정 때 정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90년대 이후, 점점 교양적 성격의 강화로 변화된 환경에서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이후, 교수·교사 등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대학 학부 수준에서는 이전에 당연히 이루어졌던 고전문학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고, 이런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 고전문학 텍스트의 성격과 교육 방법론

대략 1920년대부터 형성된 한국 고전문학의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고증학적 연구가 바탕이 되어 주로 고증에 치우친 이들의 문헌적 연구가 넓은 의미에서 원전 비평의 중심이 되었다. 갑오경장 이래 소위 과학적 방법이 시도되면서도 한국의 고전문학 연구 방법이 주로 문헌학적으로 훈련된 일본학자들에 의해 전수되었으니만큼, 당시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 출신도 거의가 문헌학적 연구방법으로 훈련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각 대학에 국어국문학과가 개설되면서도 그 문헌학적 연구 방법은 그대로 계승되었다.⁵⁾

4) 남이숙, 「일본 고전문학 교육의 변천 및 학습지도 현황 : 중학교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147~179쪽.

1930년대 중반 이후 국문학 연구를 주도했던 조운제, 김태준 등의 주요한 학문적 관심사는 자료의 발굴과 수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이본 가운데 해당 텍스트를 정립하는 노력이 있었다. 자료가 발굴되고, 원본(Original Text)과 정본(Authentic Text), 선본(先本) 혹은 선본(善本)을 확정하는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⁶⁾ 정규복의 지적처럼, 이들 연구자들이 대부분 경성제국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런 연구 방법론의 원천이 근대 독일의 텍스트학을 수용했던 일본에서 온 것임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 대학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국어국문학과와 사범대학 ‘국문과’의 배타적인 세부 전공 영역이 결정되고, 그 하위 범주로서 고전문학 강좌가 편제되었다. 여기서 고전 텍스트에 대한 리터러시 소양이 곧 전문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 되었고, 대학 과정에서 고전문학에 대한 리터러시 능력의 확보는 주로 고전강독 강좌의 개설 형태를 통해 전공자가 습득해야 할 학적 소양으로 전제되었다. 고전문학 교육 텍스트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해당 연구를 문헌학이나 서지학과 일정 정도 접속하여 내용에 대한 질적 판단에 필요한 텍스트 해석력을 요청하는 작업으로 이어진 것이다.⁷⁾ 문헌학적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문학사의 지식적 연구가 고전문학 연구의 주류를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교육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하여, 고전문학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가공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고전문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측면에 강조점이 주어지는가 하는 점에

5) 정규복, 『한국 고전문학의 원전비평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 23쪽.

6) 염은열, 『현대 독자가 과거의 시가를 만났을 때』, 역락, 2014, 106~107쪽.

7) 최기숙, 「1950년대 대학의 국문학 강독 강좌와 학회지를 통해 본 국어국문학 고전문학 방법론의 형성과 확산」,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459쪽.

서 고전문학 교육 방법론은 개념상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4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어나 문학 공히 ‘지배담론’은 고전문학에 ‘관한’ 교육 즉 지식 교육의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1차에서 3차까지의 교육과정의 경우, 존 듀이의 영향 아래 경험적 교육과정이라 불리지만, 실제 교육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식 교육의 영향이 현저하다. 현대문학에 비해 보수적 입장이 강한 고전문학의 경우, 이 점이 더 강조된다. 이 때문에 학문적 성격이 원래부터 강했던 고전문학 교육은 더욱더 지식 교육의 측면을 띠게 되었다. 사실 고전문학의 경우, 이 경향성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달라지지는 않았다. 지식 생산의 일선에서 있는 대학교수나 대학원생들의 인식도 이에서 멀지 않다. 5차 교육과정 이후에도 선택과목으로서의 문학은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⁸⁾

그런데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고전문학 교육이 지식교육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5차 교육과정 이후, 중등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평가 방식의 변화 즉 수능의 도입과 이에 따른 언어영역의 교육 실현화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식이 아니라 텍스트 읽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수능 언어영역 혹은 국어 평가를 의식하여, 교육 방식이 변화했다는 뜻이다. 이런 변화는 고전문학을 현대 학습자들의 이해와 표현 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하나의 자료로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문학교육에서의 강력한 ‘대항담론’이며, 고전문학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필자는 결국 이들 두 입장이 유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고전문학 교육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대학에서는 고전문학에 ‘관한’ 교육을 ‘지배담론’화하여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선 교육 현장과 사회에서는 고전문학을 ‘통한’ 교육의 입장만을 ‘대항담

8) 조희정, 『고전문학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2011.

론'화하여 강조함으로써, 결국 고전문학 교육은 그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고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진단한다.⁹⁾

필자의 생각으로는, 고전문학은 두 가지의 교육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나는 '고전'에 중심을 둔 것으로, 당대의 삶의 모습을 담는 자료로서 문화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전문학 교육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작품이 하나의 교육 자료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해준다.¹⁰⁾ 이러한 상황은 고전문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결국 문학사에 대한 이해, 갈래론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는 일인 동시에 '고전 텍스트에 대한 문해력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학문적 위상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해력의 습득은 '강독' 과목의 이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상정되었다.¹¹⁾ 여기서 필자는 이를 전문적 특성이라는 말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을 걸쳐 전승해 오는 동안 끊임없이 향유되고 재해석되어 현재에도 일정한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 속성이다. 이는 고전문학이 심미적인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향유자의 삶의 체험을 확대시키는 현재적 실체임을 말한다. 이는 '문학'에 중심을 둔 것으로 문학교육의 목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학습자가 작품을 통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체험을 확대하고 '자기 실현'에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¹²⁾ 여기서 필자는 이를 교양적 성격으로 개념화한다.

현 시점에서 대학의 전공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위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흔들린다고 느끼거나 보이는 것은, 결국 여러

9) 한창훈, 「고전문학 '교육' 연구의 방법적 담론과 정체성」, 『청람어문교육』 67,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386~388쪽.

10) 김중신,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자질」,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1997, 247~250쪽.

11) 최기숙, 「1950년대 대학의 '국어국문학' 과목 편제와 '고전강독' 강좌의 탄생」,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학회, 2010, 547~584쪽.

12) 이남호 외,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교육과 교양교육』,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가지 이유로 앞서 말한 바 전문적 특성의 관점을 현실에서 구현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처방으로 교양적 성격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장을 바꿔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다루어보기로 한다.

3. 고전문학 연구의 전문적 특성과 교육 텍스트

고전문학은, 오늘날의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일단 他者의 문학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의 소통 체계, 사회 구조, 생활양식, 세계관, 가치관, 문학적 관습 등이 현저하게 다른 시대의 문학이기에,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他者인 것처럼 문학 또한 그러한 것이다. 다만 고전문학은 ‘오늘날의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他者’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여기서 ‘이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¹³⁾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동떨어진 세계의 삶을 나의 기준과 논리로서만 본다면, 이해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他者의 기준과 논리를 우선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작품의 정확한 해독과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교육에서 우선 언어의 문제와 당면하게 된다.

이처럼 고전문학 교육을 살필 때에는, 우선적으로 국어교육을 언어사용 기능을 향상시키는 교육만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하여야 한다. 이는 고전문학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어지식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어 교육, 한자·한문 교육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다.¹⁴⁾ 언어가 ‘도구적

13)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방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구는 하나의 기능적 수단에 불과하고, 방법은 수단들을 조직하여 목적을 실현케 하는 원리이다. 언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온갖 맥락과 더불어 인간의 다양한 경험적 차원과 상황에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사용되는 구체적 상황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행동을 표현하고 조직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교육을 통해 문학으로 형상화된 언어를 경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의미의 구조에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여 성장의 내용으로 삼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생산하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어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그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찾아내어 자신이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어를 학습자들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교육 환경은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며, 고어의 경우 그 개선의 전망도 어두운 편이라 우려되는 점이 많다. 현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고어 문법에 대한 교육은 아예 실종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 가능한 고어 텍스트를 학습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고어를 이해하는 데 문학 텍스트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유는, 작품이 어휘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컨텍스트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김광해, 「국어지식 교육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15) 이돈희, 「언어적 경험의 교육」,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3.

현재 우리의 사정으로는 이런 교육이 가능한 것은 대학의 전공 교육 이상에서 가능하다. 대학원에서도 이런 유형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예전에 비해 대학 학부 학습자들이 이런 전문적 특성의 고전문학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갖추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도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대학의 전공 교육으로서 고전문학 수업의 시작은 작품 꼼꼼이 읽기, 즉 강독 수업이 기준이 될 수 있다. 텍스트는 되도록 원전 혹은 이에 가까운 교육 텍스트가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주석을 포함한 언어적 해독 작업이다. 텍스트에는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이전 사회에서 쓰던 말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문제는 학습자들이 이에 익숙하지도 않고 이런 수업을 따라가기에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결국, 이런 경우 원전 텍스트는 온전히 교육 텍스트로 기능하기 힘들게 된다. 이의 전문적 특성을 다루려면 그 기반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즘의 대학 학부 과정은 이를 수행할 의지도 여유도 없다고 보인다. 하여 현재의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텍스트 가공이 필요하다. 즉 적절한 주석을 포함한 해석이나 번역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문학 언어 그 자체는 교육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언어에 대한 가공 작업, 즉 현대의 학습자들이 주석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당대의 관습을 확인하고 의미망을 공유할 때, 그 교육적 가치가 살아나게 된다.¹⁶⁾ 이때의 주석은 당대적 맥락까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16) 유명대, 「고전문학의 언어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2, 한국문학교육학회, 1998.

한 경우 텍스트의 언어를 현대 일상적인 언어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언어 교육이 단순히 말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담지하고 있는 역사와 철학의 지혜를 탐색하는 데까지 이름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다. 13경이라는 경서의 언어를 주석하면서 형성된 성리학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수 있다.

고전문학의 언어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교육적 가치를 획득하려면, 그 언어를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겪는 과정이 교육적 의미를 띠고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고전문학에 나타난 언어의 해석 과정을 통해, '지성과 감성 사이의 섬세한 상호 조절과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의식을 확대하고 심성을 도야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이러한 교육의 자료로서 기능하는 위치에서 고전문학에 나타난 언어는 현대 언어와 만날 수 있고, 상호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이를 위한 2차 자료 즉 주석서나 해설서들이 꽤 많이 그리고 충실하게 나와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주석서와 해설서는 공통적으로 우선 배경 지식 설명, 텍스트 원문과 그 주석, 현대 번역, 색인 구성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런 구성은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교육 텍스트의 각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교육에 활용하기 편리하다.

이처럼 고전문학 교육 텍스트는 넓은 의미의 번역의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조동일에 견해에 따르면, “옛글 되살려 오늘날 것 만들기는 네 단계의 작업이다. (1) 알아보기 (2) 새겨보기 (3) 뒤집어보기 (4) 다시 만들기이다. 원문 해독은 (1)이다. 오늘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역이나 번역은 (2)에 해당한다. 풀이는 (3)에 이른다.” 그리고 “옛글을 오늘날의 것으로 되살리는 방법은 글의 갈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문문학 작품을 현대어로 옮기는 것은 번역이 아니다. 현대문이 원문을 대신할 수 있다.

17) 김종길, 「시는 왜 가르치는가」,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7쪽.

한문학 작품은 원문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원문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이 필요하다.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번역을 읽어야 한다. 번역을 잘하면 원문과는 다른 또 하나의 창작이 될 수 있다.”¹⁸⁾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논하는 모든 교육 텍스트들은 결국 자료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교과서와 참고서의 개념이 분리되어 있어서, 공부 대상은 교과서이고, 참고서는 말 그대로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 작용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말았다. 필자는 고전문학 교육에서는 교과서는 원전이 되어야 하고, 기타 사전, 주석서, 해설서 등은 참고서로 기능해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는 가급적 하나로 확정되어야 하고, 참고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다.

과거의 고전문학 작품이 갖는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현재화된다. 고전문학 교육에는 시간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변모가 개입하는데, 이러한 개입을 ‘시대 인식’ 혹은 ‘역사적 상상력’이라 부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고전문학 텍스트와 역사적 이해의 관련 양상에 있다. 그런데 기존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은 너무 광범위한 시대 전체의 지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고전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 지식을 거시적으로 다룬다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미시적 역사는 사라지고, 결국 암기 대상으로서의 연표만 남게 된다. 때문에 문학교육에서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데에는 일반화 된 서술이 아니라 시대에서 시대로 계승된 모습이라든지 생활양식이나 민족의 변천을 보여줄 구체적 예를 통해서 시작해야 한다.¹⁹⁾

일본은 고문과 한문을 포함해 ‘古典’이라 개념화한다. 여기서 고문의 대부분은 문학이 위치하며, 아울러 한자는 물론이거니와 한문 역시 일본의

18)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5,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19) 한창훈, 「고전문학 ‘텍스트’의 정체성과 교육적 가치」,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II』, 월인, 2008.

언어문화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한문학도 중요한 비중을 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문을 포함한 고문이 학생들의 흥미나 능력에 못 미치며 중요도가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라고 본다.²⁰⁾ 때문에 교육 방식도 텍스트를 현대어로 번역하기 보다는 원문을 제시하고 주석 등을 통해서 실제 독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교육 방향을 잡는다. 특히 한시나 유교 경전류도 고전문학 교육의 범주에 넣는 것은 인상적이다.

1960년 현대국어와 고전으로 분류될 때, 그것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이유를 ‘현대 국어의 학습은 고전학습이 목적하는 바와 방법 등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하고, ‘고전학습이 문화유산의 계승, 감상, 비판이라고 하는 다분히 교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로 독해에 관한 것이며, 현대 국어의 학습은 오늘날의 생활의 모든 면에 밀접히 관계하여 독해, 표현을 포함하여 현대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²¹⁾고 보았다.

남이숙은 주로 일본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전문학 교육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²²⁾,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실제 참여보다는 교사 주도의 수업이 더 우세했다. 여기서 남이숙의 보고와 필자의 관찰에서 동시에 확인되지만, 한국의 고전문학 교육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교수-학습 활동이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바로 ‘음독-암창’ 활동이다. 시가나 산문 같은 갈래에 상관

20) 野地潤家, 『國語教育通史』, 共文社, 1985.

21) 이 설명은 時枝誠記에 의한 것인데, 그는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있다가 패전 후 도쿄대학 교수로 일본 국어국문학계와 국어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이와나미에서 문고본으로 그의 저서들이 복간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時枝誠記, 『國語學史』, 岩波文庫, 2017; 時枝誠記, 『國語學原論』(上)(下)(續篇), 岩波文庫, 2018. (남이숙, 「일본 고전문학 교육의 변천 및 학습지도 현황: 중학교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151쪽 재인용.)

22) 남이숙(2013), 위의 논문, 147~179쪽.

없이 고전은 기본적으로 ‘음독·암창’을 통해서 소리를 내어 즐기도록(?) 되어 있다. 학습지도 요령서들을 참고하면, 고전을 ‘무조건 소리 내어 암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관련성에 유의하여 되풀이해 소리 내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 고문 원문의 리듬에 익숙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²³⁾

한편 일본 대학의 국문학과 고전문학 수업은 전문적 특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강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를 꼼꼼이 해독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학계의 사전이나 주석서들의 양과 질 양쪽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국문학계도 고민이 많이 있다. 2019년 필자가 연구년으로 체류했던 日本 同志社大學 國文學科에서 일본 고전산문 전공의 히로타 교수도 연구회 집담회에서²⁴⁾ 일본 대학생들의 고전과 작문 실력이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국어교육 특히 고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예전에 비해 일본 학생들의 고문 독해는 물론이거니와 한문 실력도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 일본 국어교육계 인사들의 인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상적인 비교 관찰일수도 있으나,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였다.

결국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한 일본이 한국보다 그 비중이나 교수·학습 방법이 전통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고전 텍스트가 교과서에서 확고하게 정전 즉 교육 텍스트로 자리 매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부터 보이며 고등으로 올라올수록 그 현상이 일관적이며 뚜렷하다. 이러한

23) 宮崎健三 外編, 『古典の教え方』, 右文書院, 1992.

24) 廣田收 교수가 주동이 되어, 장기간에 걸쳐 한국 구비문학대계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日韓比較文學研究會, 『翻譯 韓國口碑文學大系』 I, 金壽堂出版, 2016.

일본의 고전 교육의 모델 성립은, 일본 국학과와 문헌학의 선구가 된 모토 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고사기』 주석 연구인 『고사기전』 영향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국문학’ 성립은 모토오리를 비조로 하는 에도 시대의 국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구축된 것이다. 東京大學 和文學科를 창설하고 이끌었던 하가 아이치[芳賀失一]는 『國學史概論』(1900)에서 “언어 즉 문학에 나타난 것을 재료로 하여 국체를 이는 것이 문헌학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하고, 이를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潛一]가 충실히 계승하여, 현재까지도 일본 국문학 연구와 교육의 정통이 되었다.²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전문학 교육에서 원전 학습으로 대변되는 정통적인 시각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학습자들에게 요구한다. 때문에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공 교육을 설계한다면, 당연히 이런 연구 활동과 긴밀히 연관된 교육 활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의 전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바로 고전문학 연구 자체의 미래적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여러 가지 현실 문제로 이런 교육을 대학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교양 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 교육을 전공 교육으로까지 확장한다면, 필연적으로 대학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 및 교육 관련자들의 논의와 논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5) 배관문, 『황국의 발견 : 일본 국학의 자국 표상 담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4. 문학의 교양적 성격과 교육 텍스트 다루기

한국의 문학교육은, 작품 중심이라 부르든, 정전 혹은 실체 중심으로 부르든, 문화적 유산으로서 문학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교강사에 의해 전수하는 정통적 교육 방식 즉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 특성에 대한 비판과 회의의 거둬해 왔다. 그것은 곧 앞 장에서 살펴본 전문적 특성의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작품(정전, 실체) 중심, 교사 중심, 해설 중심보다는 텍스트 중심,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으로 문학교육의 방향을 취해 나가자는 입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러한 결향의 흐름은 학습자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에 입각한 적극적 내면화와 자기화를 지향하게 되는 데, 이에 ‘구성주의’ 등의 입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²⁶⁾

현재 한국의 문학교육과정은 대체로 “활동 중심 → 속성 중심 → 실체 중심”으로 위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에서는 구체적 인 문학 활동 위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는 문학 속성 중심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문학 과목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실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선택 문학 교육 교과서는 대부분의 경우, 1을 갈래 중심으로, 2를 문학사 중심으로 편집하고 있는데, 이도 위계성의 측면에서의 고민을 나름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궁여지책으로 볼 수 있다.²⁷⁾

이런 점을 차별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문학교육과정문에서는 문학 작품 선정에서 차별화하려고 하지 말고, 다루는 방식에서 차별성을 두고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작품 자체의 위계나 차이보다는 다루는 과정에서 지식이 더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지

26) 정재찬,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실천」, 『독서연구』 21, 한국독서학회, 2009.

27) 한창훈, 「문학교육의 위계성과 차별성」, 『고전문학 교육의 중심과 주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는 것이, 곧 위계가 높아지고 더불어 차별성이 생겨나는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행 중심 ⇒ 분석 중심 ⇒ 평가 중심”으로 위계화하는 방안²⁸⁾도 이와 유사한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고전문학의 교육철학으로 고전문학의 ‘문학적 문화’를 강조한다. 근대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학이라는 용어의 개념과는 달리, 고전에서 쓰였던 문학에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포괄한 인문학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일은 문화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문화를 익히고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은 문화 속에서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²⁹⁾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쓰는 문화라는 개념을 분석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교양이라는 개념과 그 의미가 상통함을 알 수 있다.

교양은 일상에서나 학문적으로나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독일어 Bildung, 영어 Culture가 일본에서 教養으로 번역되어, 일제 식민지 시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이는 그리스·로마의 교육 내용에서 유래하여,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대학교육과정에 자리 잡은 자유 학예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에 공히 적용된 미 군정의 고등교육 개혁으로 도입되는 미국식 ‘교양교육’과도 연결된다. 교양이 단순히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인격적 도야 이론’ 혹은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정치적 교양’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그것으로 통하는 길은 책 읽기이다. 즉 이를 우리 논의의 관점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책 읽기를 기반으로 한 인문학 중심의 고전교육이라는 범주로 한정시킬 수 있다. 교양은 학력의 깊이나 양

28) 김대행, 「국어교육의 위계화」, 『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7.

29)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9~25쪽.

과는 다른 것으로, 일정한 문화 이상을 체득하여 이를 통해 체화된 창조적인 이해력이나 지식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시대나 민족의 문화 이념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다.³⁰⁾

문사철 등의 인문계 서적의 독서를 중심으로 한 인격주의가 경성제국대학을 통해서 지배하던 이념은 바로 교양주의였고, 이러한 교양주의를 몸에 익힌 지식인이 대량으로 배출되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 초반이었다.³¹⁾ 최근 들어 이루어진 교양과 문학의 관계를 다룬 논의들은 대부분 근대문학을 대상으로 그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사실 고전문학의 경우도 연구가 아닌 교육 문제를 다룰 때에는 교양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아주 이른 시기 학문적 차원에서 고전문학 교육 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던 정학모의 논의도 결국 교양으로서의 고전문학 교육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³²⁾

문제는 이런 교양으로서의 고전문학 교육을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다.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양산되어 왔지만, 사실 이런 모든 연구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1929년에 초판이 발간된 저명한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구상이다. 고전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처량하게 만드는 것은 문헌학적 주석과 실질적으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줄거리나 등장인물에 관한 간단한 분석을 붙인 문학을 가르치는 일이다. 단순히 문학에 관한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문학이 어떻게 이해되는냐이다.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되는

30) 서은주, 『문학, 교양의 시간』, 소명출판, 2014; 허병식, 『교양의 시대 : 한국근대소설과 교양의 형성』, 역락, 2016.

31) 윤대석, 「경성제대의 교양주의와 일본어」,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415~438쪽.

32) 정학모, 「고전적 문예와 교육」, 『어문』 2, 우리어문학회, 1950.

것이 아니며, 문학의 즐거움을 맛본다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 “원전이 지닌 매력과 위대함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번역을 하도록 하고, 번역을 올바른 속도로 낭송하고 이해를 돕게 하는 주석을 붙인다. 고전에 대한 이러한 대처 방식은 살아 있는 예술 작품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번역을 통해서 올바른 속도로 전체로서의 통일성에 대한 감을 먼저 잡고 나서, 올바른 속도로 원전을 읽음으로써 작품 전체가 주는 온전한 가치를 최종적으로 음미하게 한다는 것이다.”³³⁾

이런 화이트헤드의 구상은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영국의 교육철학자 피터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피터스는 화이트헤드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영국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일을 주도했으며, 이처럼 형성된 교양 교육론은 다시 미국에 영향을 미쳐 중등교육은 물론 주요 대학의 교양학부 및 인문교육 구상에 이바지했다.³⁴⁾ 피터스의 후임으로 현재까지 교양으로서의 인문교육에 지속력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교육 체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친밀한 애착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친밀한 관계를 배울 가장 좋은 수단인 문학이, 중등 교육에서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의 활동을 제쳐놓고 수학과 과학을 ‘중핵’ 교과로 격상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 사실, 우리가 반드시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학습의 형식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인문학이라 부른다. 여기에 포함될 것은 예술, 특히 문학이다. 윤리적 가치의 탐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건강교육, 민주시민이 되기

33)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교육의 목적』, 궁리, 2004.

34) 스테판 쿠퍼스·크리스토퍼 마틴, 이병승 역, 『피터스의 교육사상』, 서광사, 2017.

위한 준비 등 ‘인성교육’이라는 명칭에 자주 포함되는 공부, 자기가 속한 국가 공동체의 사회구조, 경제, 제도 등에 대한 공부, 다른 정치 공동체의 사회구조, 경제제도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덜 구체적인 공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 등이 그것이다.”³⁵⁾

이들의 지적처럼 고전문학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형성을 위해 여러 다른 텍스트를 필요로 한다.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국어사적 지식도 필요하고, 배경이 되는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 작품에 반영된 사상을 알기 위해 당대 지배적 주류의 철학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이들 텍스트들 자세히 말하면 컨텍스트간의 관련 양상을 고려해야만, 그것의 교육적 가치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텍스트라는 실체와 그것을 담고 있는 물리적 객체로서의 책/문서를 동일시하는 것은 중대한 인식론적 오류다.”³⁶⁾

지금은 많이 축소되어 있으나,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읽기 강좌도 존재한다. 학습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가장 우선시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속에서도, 고전 읽기를 하는 이유와 그것을 통해 얻는 효과에 대해 ‘통합인문 교양교육’의 핵심이라 강조하기도 한다. 고전문학은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에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³⁷⁾

서양의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일본도 예외 없이 이런 교양적 풍조를 받아들인다. 현재까지도 그 제도를 완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東京大學 教養學部는 이것의 상징적 존재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학력 지상주의, 시험 지상주의, 출세 지향주의 등이 이에서 시작된다. 이에 일본

35) 존 화이트, 이지현·김희봉 역, 『교육목적론』, 학지사, 2002.

36) 김홍규, 「매체 환경의 변화와 고전 텍스트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7) 최애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읽기」,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교육과 교양교육』,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75~92쪽.

의 교양론은 ‘수양과 ‘입신출세’가 길항 하는 단계를 거쳐, 개인과 사회(국가 혹은 민족)의 매개 여부와 방식을 문제 삼아, 전체주의적 요소를 비판하는 지점까지 이어진다.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 제도의 권위를 방패 삼아 지식 향수 계층을 견인해내고 전문 지식의 고립성, 폐쇄성으로 인한 소통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인문주의적 가치를 담지한 지식 체계가 요구되었다. 이 지점에서 바로 대학 제도는 교양과 만난다.

그러나 이처럼 전통적으로 교양을 강조하던 일본도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 기술이 전면적으로 사회의 지적 역량을 끌고 가는 시대를 맞아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³⁸⁾ 필자는 일본의 이런 태도는 구제 고등학교(현재는 대학의 교양학부에 해당) 시절 이후 변치 않고 내려온 나름의 전통이라고 본다.³⁹⁾ 필자의 판단으로는 일본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은 전문적 특성을 강조하는 소수 정예 개념의 대학 전공 교육과 교양적 성격에 가치를 부여하는 교양 교육간의 간격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일본의 경우도 중등학교의 경우, 교양적 성격에 그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⁴⁰⁾

현대 학습자들은 고전문학의 전문적 특성보다는 교양적 성격에 더 친숙하다. 교육과정 분석에서 보이듯이 오랜 시기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져 왔고, 고전문학 텍스트를 넘어서 세계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텍스트로 그 대

38) 藤本夕衣, 『古典を失った大學：近代性の危機と教養の行方』, NTT出版, 2012. 1~290쪽; 다치마나 다카시, 이정환역,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지적 망국론+현대 교양론』, 청어람미디어, 2002.

39)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한 대표적인 업적이 다음 책을 필두로 한 교육사회학자 다케우치 교수의 일련의 연구 업적이다. 다케우치 교수는 ‘구 제국대학, 넘버스쿨에서 기원하는 교양주의의 발흥이, 이후 마르크스주의 수용, 종합 잡지의 흥성과 결부되어, 1960년대 학생운동의 발흥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竹内洋, 『教養主義の没落』, 中公新書 1704, 2003.

石原千秋, 『教養としての大學受験國語』, ちくま新書, 2000, 1~302쪽; 石原千秋, 『國語教科書の思想』, ちくま新書, 2005, 1~206쪽.

상을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자에 들어서는 대학의 교양과정은 물론이고,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공 교육에서도 고전문학 교육 텍스트의 교양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문과대학 혹은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기존 전공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기는 것은, 바로 기존의 전문적 특성의 강조 대신 교양적 성격을 받아들이고 이를 강화해나가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의식적이든 아니든, 기존의 고전문학 전공 교육에 부족함을 느끼고 특히 학습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다보면, 상당부분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교강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제의 지점은 다소 명확해질 수 있으나, 해결책의 제시는 그리 쉽지 않다는 인식을 얻게 된다. 교양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요소가 일정 정도 이상의 비중을 지니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전공 교육의 정체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에 위기가 온다는 것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것의 존재 기반 자체를 문제삼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학마다 구체적 사정은 다르지만, 대략 1990년 이후 나름 성행 했던 문학 관련 대학 교양과목,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고전문학의 이해’, ‘고전문학과 여성’, ‘고전문학과 영화’ 등의 교양적 성격을 강화해서 운영하던 교과목들의 현재적 위상을 보더라도 이런 성격의 무한정 강화가 꼭 필요한 일인지는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전문학 연구 및 교육 관련자들의 상호 논의가 긴요해지는 지점이라 하겠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전공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염두에 두고, 고전문학 교육 텍스트를 다루는 전문적 특성과 교양적 성격의 관점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한국 대학은 기본적으로 전문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전공 교육으로의 고전문학을 확립해 왔다. 수 많은 원전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학사의 구축이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전공 교육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고, 그 빈자리에 교양적 성격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교양적 성격은 기존 중등교육과 대학 교양과정에서 익숙하게 다루던 방식으로, 다른 관점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전공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문제는 고전문학 교육의 교양적 성격을 강조하면 할수록 ‘고전’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의 일반성이나 보편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상반된 요소의 적절한 조합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어설픈 섞기는 양쪽의 정체성에 다 상처를 줄 수 있다. 때문에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관련자들간의 상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고찰만으로 제기된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논쟁,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런 논의를 전개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사례를 견주어가면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런 고찰이 양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비교나 대비를 넘어선 가치 평가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양국 인식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각자 나름의 배경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있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기에 명확하게 부기해 둔다.

참고문헌

- 김광해, 「국어지식 교육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 21~33쪽.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9~25쪽.
- 김대행, 「국어교육의 위계화」, 『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7, 7~43쪽.
- 김종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180쪽.
- 김중신,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1997, 1~350쪽.
- 김창원 외, 『문학교육개론』 I·II, 역락, 2014, 총 840쪽.
- 김현정, 「중등학교 고전문학교육의 위계성 검토(1)」, 『국어교육연구』 3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3, 453~495쪽.
-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306~321쪽.
- 김홍규, 「매체 환경의 변화와 고전 텍스트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1~12쪽.
- 남이숙, 「일본 고전문학 교육의 변천 및 학습지도 현황: 중학교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147~179쪽.
- 배관문, 『황국의 발견: 일본 국학의 자국 표상 담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1~309쪽.
- 서은주, 『문학, 교양의 시간』, 소명출판, 2014, 1~305쪽.
- 염은열, 『현대 독자가 과거의 시가를 만났을 때』, 역락, 2014, 1~256쪽.
- 유영대, 「고전문학의 언어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2, 한국문학교육학회, 1998, 203~220쪽.
- 이남호 외,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교육과 교양교육』,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1~317쪽.
- 이돈희, 『교육적 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3, 1~393쪽.
-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1~668쪽.
- 정규복, 『한국 고전문학의 원전비평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 1~348쪽.
- 정재찬,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실천」, 『독서연구』 21, 한국독서학회, 2009, 111~159쪽.
- 정학모, 「고전적 문예와 교육」, 『어문』 2, 우리어문학회, 1950, 5~10쪽.

-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5,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1~349쪽.
- 조희정, 『고전문학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2011, 1~375쪽.
- 최기숙, 「1950년대 대학의 국문학 강독 강좌와 학회지를 통해 본 국어국문학 고전연구방법론의 형성과 확산」,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457~493쪽.
- 최기숙, 「1950년대 대학의 ‘국어국문학’ 과목 편재와 ‘고전강독’ 강좌의 탄생」,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학회, 2010, 547~584쪽.
- 한창훈, 「고전문학 ‘텍스트’의 정체성과 교육적 가치」,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II』, 월인, 2008, 13~27쪽.
- 한창훈, 「고전문학 ‘교육’ 연구의 방법적 담론과 정체성」, 『청람어문교육』 67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8, 383~412쪽.
- 한창훈, 『고전문학 교육의 중심과 주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37~67쪽.
- 한창훈, 「한국과 일본의 중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관점의 대비적 고찰」, 『어문연구』 106, 어문연구학회, 2020, 305~328쪽.
- 허병식, 『교양의 시대 : 한국근대소설과 교양의 형성』, 역락, 2016, 1~302쪽.
- 다치바나 다카시, 이정환 역,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 지적 망국론+현대 교양론』, 청어람미디어, 2002, 1~343쪽.
- 스टे판 쿠이퍼스·크리스토퍼 마틴, 이병승 역, 『피터스의 교육사상』, 서광사, 2017, 1~380쪽.
- 존 화이트, 이지현·김희봉 역, 『교육목적론』, 학지사, 2002, 1~325쪽.
-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교육의 목적』, 궁리, 2004, 1~322쪽.
- 石原千秋, 『教養としての大學受験國語』, ちくま新書, 2000, 1~302쪽.
- 石原千秋, 『國語教科書思想』, ちくま新書, 2005, 1~206쪽.
- 竹内洋, 『教養主義の没落』, 中公新書 1704, 2003, 1~278쪽.
- 時枝誠記, 『國語學史』, 岩波文庫, 2017, 1~317쪽.
- 時枝誠記, 『國語學原論』(上)(下)(續篇), 岩波文庫, 2018, 1~963쪽.
- 日韓比較文學研究會, 『翻譯 韓國口碑文學大系』 1, 金壽堂出版, 2016, 1~334쪽.
- 野地潤家, 『國語教育通史』, 共文社, 1985, 1~254쪽.
- 藤本夕衣, 『古典を失った大學 : 近代性の危機と教養の行方』, NTT出版, 2012, 1~290쪽.
- 宮崎健三 外編, 『古典の教え方』, 右文書院, 1992, 1~469쪽.

ABSTRACT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and Liberal Arts Character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Text
: Focusing on Its Status as a University's Major Education

Han, Chang-hun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a general perception that universities are immersed in specialized research that creates new knowledge,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established hereby are spread through secondary education. However,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itself moved away from academic-centered knowledge education and moved to a communication-centered function center,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lso has had a gradual change from the education content focusing on the existing literature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to education centered on the linguistic attributes of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has two educational properties. One is a property that is constantly enjoyed and reinterpreted while being handed down over a long time, which has a certain emotional influence even today. This can be conceptualized as a liberal arts character. The other is the fact that it shows the original form of culture as a material that contains the appearance of life at the time. This gave it an academic status of acquiring literacy for classical texts. I attempt to conceptualize this in terms of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Every classical literature text has its own inherent value. However, even if the original text is valuable, it does not immediately acquire educational value. 'Liberal arts' refers to creative understanding or knowledge that is embodied through acquiring a certain cultural ideal, and its content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or the cultural ideology of a nation. As an educational philosophy of classical literature, I emphasize that 'culture' has a meaning encompassing history and

philosophy. Here, the concept that responds well to culture is considered liberal arts.

At this time, in the case of Korea, attention is paid to the concept term of 'culture' in the composition of the curriculum. In the case of Japan, the concept term of 'liberal arts' is highlighted as important in the composition of the curriculum. Here, I will not make a value-based evalu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because each has its own historical background and reason.

This trend comes to affect the university curriculum in Korea, and even in undergraduate major classes at universities, there has been a situation where we are thinking about new teaching methods. As a result,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that flow from the existing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to the strengthening of liberal arts characteristics.

Key Words

Education Text. Liberal Arts Character.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the original form of culture. literacy

논문투고일: 2023.04.15.
심사완료일: 2023.05.03.
게재확정일: 2023.05.04.